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기원

D-600 언택트 이벤트 | 22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대회 소셜미디어 접속
응원메시지 남기면 응모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국민적 관심과 대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대회 성공기원 D-600 언택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3~22일 10일 간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회 공식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대회 D-600 기념 영상을 감상한 후, 링크된 이벤트 참여 SNS(페이스북)에 대회 성공 기원을 바라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홍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를 개편, 대회 준비상황은 물론 경기장과 경기 중보 소개, 도내 관광·맛집 정보와 축제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인다.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대회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www.facebook.com/APMG2023), 인스타그램 (@www.instagram/APMG2023), 유튜브 (www.youtube/APMG2023), 블로그 (blog.naver.com/APMG2023), 카카오플러스채널 (pf.kakao.com/PKxdxK).



프로골프 재능기부단 정한나래.

‘흥미 진진, 재미 만땅’ 골프 수업

제2기 여자프로골프 재능기부단, 익산 계문초 찾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선발한 2021 KLPGA 제2기 재능기부단이 전북 익산시 계문초등학교에서 첫 재능기부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등으로 구성된 제2기 KLPGA 재능기부단 총 11명이 선발됐다. KLPGA만의 특화된 역량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국내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모인 재능기부단은 유소년 골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능기부를 펼친다.

이날 전북 계문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골프 수업에서는 KLPGA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골프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골프 레슨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첫 재능기부단 레슨에는 티칭회원 정한

나래(29)가 참가해 자신의 재능을 열정적으로 나눴다. 제1기 KLPGA 재능기부단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한나래는 “2019년 1기 활동 이후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2기 선발이 늦춰진 점이 아쉽지만,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며 “아이들이 어릴 때 골프를 배움으로써 골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생겨 훗날 어른이 되어 골프가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이 골프를 조금이나마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나의 재능을 아낌없이 펼치겠다”고 말했다.

KLPGA 재능기부단은 전국 총 9개교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골프 수업을 진행하며,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재능기부단 키트도 지급해 더 풍성한 나눔을 전개할 예정이다. /뉴스

‘쇼트트랙 스타 성폭행’ 조재범, 2심서 13년형

1심 징역 10년 6개월서 형량 가중
법원 “피고인 주장 피해자에 2차가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객관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사진)가 형소장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 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



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반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선고까지 지속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조 씨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접촉을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반복했다”라면서 “그러나 반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 성관계 암시 문자 등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차원의 진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한 스승이었고, 상습성범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호감 표시의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원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심 선수 측의 변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 측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며 재판부도 이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형량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다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뉴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월드컵 4강 이끈 히딩크 감독, 지도자 은퇴 선언

2002 한일월드컵 4강 진출로 국민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명장 거스 히딩크(76)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히딩크 감독은 1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방송 SBS 6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는



퀴라소 대표팀에서 즉시 물러남과 동시에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히딩크 감독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퀴라소 축구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러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히딩크 감독은 1987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을 통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첼시(잉글랜드), 네덜란드, 러시아, 호주 등을 맡아 굵직한 성과를 냈다. 한국팬들에게는 2002 한일월드컵의 영웅으로 불린다. /뉴스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